

순천만정원, 가을정원페스타 79만명 방문

32일간 79만여 명 방문 … 작년 대비 입장객 8.6% 늘어

지난 9월 12일 추석연휴부터 시작한 ‘순천만국가정원 가을정원페스타’가 32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10월 13일 성황리에 종료됐다. 가을꽃의 대표 명사인 국화를 비롯한 코스모스, 구절초, 핑크몰리, 갈대 등이 순천만국가정원 곳곳을 화려하게 물들었다. 가을정원페스타 기간 동안 주말 평균 10만 명씩 약 79만명의 관람객들이 가족, 연인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 국가정원 서문에서는 공작, 물고기, 사자 등의 꽃 조형물이 시선을 사로잡았고, 네덜란드 정원 뒤편의 넓은 코스모스와 핑크몰리 군락은 많은 연인들의 인생샷 장소로 이름을 올렸다.

행사 기간 동안 순천만국가정원에서는 다양한 행사들이 순차적으로 열렸다.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과 순천만국가정원 일원에서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가 개최되었고, ‘순천만 국제교향악 축제’에서는 정명훈이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공연과 정원 갈라 콘서트 등이 진행되어 가을밤을 낭만으로 물들였다.

또한 태국정원과 바위정원 인근에서는 ‘대한민국 한평정원 페스티벌’이 개최되어 정원 작가, 일반인, 학생들이 각각 한평 남짓한 공간에 여러 정원의 모습을 연출·전시하여 이색적이고 다양성 있는 정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부대행사로 관람객들을 위한 버스킹과 퍼포먼스 공연이 매주 목요일부터 주말까지 펼쳐져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동문에서는 컨츄리송, 클래식 파트로, 오카리나 연주 등 다양한 종류의 버스킹이 진행되어 가을 정원의 정취를 한껏 고조시켰고, 중국 정원 앞에서 진행된 버블쇼, 마술, 넌 버벌코믹쇼 등은 가족 관람객들의 호



순천만국가정원.

응을 얻었다. 순천시 관계자는 “가을정원페스타 행사는 막을 내렸지만 핑크몰리는 11월까지 개화하고, 가을꽃은 11월 초까지 연출되며, 한평정원 작품은 1년 동안 전시되므로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가족·연인과 순천만국가정원을 방문해 가을의 여유를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순천만국가정원에서는 12월 말부터 별빛축제가 진행된다. 공룡과 동물을 주제로 ‘나이트사파리’, 별빛으로 물든 ‘라이트가든’ 등 겨울 순천만 국가정원의 정취를 관람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정순이 기자



중국 북경세계원예박람회장에 조성된 한국 정원을 찾는 관람객들.

한국정원, 중국 북경세계원예박람회 ‘금상’

생태수도 순천시 북경원예박람회장엔 한국 대표정원 조성

순천시는 ‘한국정원, 세계의 평화와 교류를 희망하다’를 주제로 대한민국을 대표해 북경세계원예박람회장엔 2100㎡ 규모로 조성한 한국정원이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19년 4월 29일부터 10월 7일에 걸쳐 162일 동안 진행된 이번 박람회는 ‘녹색생활, 아름다운 정원’을 주제로 국제관, 원예산업발전구역, 원예전시관, 자연생태 전시구, 생활체험관, 특색 원예지구 등으로 조성되었고 세계 110여 개 국가 및 기구가 참가하여 저마다의 아름답고 독특한 정원문화를 선보였다.

금상을 수상한 한국정원은 정원 중앙에 전통정원의 상징물로 대표되는 누각을 표현하고자 옛 순천부읍성에 있던 연자루를 축소해 아름답게 축조하고, 조경은 순천만의 아름다운 S자 수로와 연못으로 표현했다. 식재한 식물은 한국의 사계절 특성을 살린 다양한 꽃들로 구성되어 자연과 하나 되는 공간이 되도록 조성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순천시는 지난 개막부터 홍보관을 운영하고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한국관과 홍보영상 상영 및 사진 전시, 전

통부채·청사초롱 만들기, 한복 및 전통놀이 체험을 진행했고, 한국문화체험 공간에는 인절미 떡 만들기, 김치와 보쌈 시식행사 등 한국음식 만들기 체험과 시식 행사를 마련해 관람객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또한, 5월 25일 국가의 날 행사에서는 북경교민을 초청해 국립남도국악단의 사물놀이와 부채춤 공연, 비보이 탈춤, 드로잉쇼를 비롯해 스누퍼, 네온편지 등 K-POP 축하공연으로 한국정원과 문화를 알렸다.

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가정원 1호의 도시에 걸맞게 새로운 미래 산업 블루오션인 정원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2020년 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 개최등 국내 정원문화 확산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에서는 지금까지 2011 중국 서안 화회박람회장엔 ‘순천정’, 터키 EXPO 2106 안탈리아엔 ‘한국정원’을 조성하는 등 한국의 정원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있다.

정수현 기자

순천 시티투어 명물 ‘트롤리버스’ 여행 상품으로 개발

기존의 도심 순환형 운영에서

해설사와 함께하는 여행으로

순천시는 10월 15일부터 시티투어 도심코스인 트롤리버스의 운행방식을 도심 순환형에서 해설사와 함께 여행하는 형태로 바꾸고 문화의거리와 웃장 대신 일몰이 가장 아름다운 와온해변을 경유지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현재 순천시 시티투어는 자연생태코스 와 도심코스로 운영하고 있다.

‘자연생태코스’의 경우 리무진 버스 1대가 1일 1회 예약제로 운영되며 순천외곽에 위치한 선암사, 송광사, 낙안읍성과 도심에 위치한 순천만습지, 국가정원, 드라마촬영장등을 요일별로 코스를 정해 운영하고 있다.

트롤리버스 2대로 운영중인 ‘도심코스’



트롤리버스.

의 경우는 도심관광지를 포함한 9개 승강장을 경유하면서 자유롭게 승·하차하

전효성 기자



팔마의 재발견! 새로운 순천, 2019년 팔마문화제 개최

“가을밤 순천 인문축제·시민 참여형 문화제 함께하세요” … 다채로운 프로그램 눈길

순천시(시장 허식)는 시 승격 7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17일(목)부터 ~ 19일(토)까지 3일간 순천시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청령, 애민, 배려를 기본으로 팔마 정신을 계승하는 ‘2019순천팔마문화제’를 개최한다.

올해 팔마문화제는 예년과 다르게 ‘팔마의 재발견! 새로운 순천’의 주제로 팔마 기본정신을 찾는 순천형 인문축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최석 부

사 한생의 거리행렬’, ‘관내 25개 공공기관 청령협약식’, ‘연극 팔마에게 길을 묻다’, ‘팔마 토크쇼’, ‘팔마퀴즈’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된다.

청령협약식은 순천교육지원청을 비롯한 25개 기관단체가 최석부사의 청령정신을 함께 공유하고 지켜나가기 위한 다짐의 의미로 진행된다. 또한 한옥골방, 문화의 거리, 조례소공원, 신대회관 등 순천시 전역에서 팔마정신 찾기 문화행사가 동시에 개최되어

시민들 모두가 기억하는 순천 팔마정신을 알릴 계획이다.

한편 순천시 관계자는 “올해는 순천시가 시 승격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팔마문화제를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팔마정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인문 문화제 형식의 팔마문화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지연 기자

순천시, 24일 ‘2019 도시재생 한마당’ 개최

순천시는 오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향동 문화의 거리 일원에서 열리는 ‘2019 도시재생 한마당’에서 가상현실 세계(VR.A), 로봇 바리스타, 도시재생 VR 투어, 스마트 환경 모니터링 등 스마트기술 체험행사를 선보인다.

고화질의 슈퍼 VR체험으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입체영상을 통해 1천편 이상의 입체영화와 35가지 스포츠게임이 준비되어 있고, 5G 기술을 활용해 순천만습지, 순천만 국가정원, 선암사, 낙안읍성, 드라마세트장 등 순천의 관광지와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장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관람객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행사장에서는 로봇 바리스타도 만날 수 있다.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로봇카페는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

일로 로봇이 만드는 특별한 메뉴를 맛볼 수 있다.

도시재생 VR 투어는 700년 순천 부읍성 옛 골목과 도시재생 거점공간인 장안창작마당, 서문안내소, 생활문화센터, 창작예술촌 등 문화의 거리를 VR 콘텐츠로 현장을 체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지금까지의 도시재생 성과를 바탕으로 4차산업 혁명시대, 사람을 위한 기술로 도시를 혁신하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의 융합으로 바람직한 미래도시의 상을 그려보는 참여와 체험의 장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김지연 기자

본지는 인터넷신문 ‘아침신문·순천신문·하루타임즈’와 자회사입니다

순천일보·순천신문·하루타임즈 등(zum)에서 검색

‘살아있는 조선’ 낙안읍성 민속문화축제 개최

18일부터 20일까지 공연·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순천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낙안읍성 보존회가 주관하는 ‘제26회 낙안읍성 민속문화축제’가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순천시 낙안읍성 일원에서 개최된다.

「어서 와! ‘살아있는 조선’은 처음이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그동안 문화유적을 중심으로 하는 하드웨어 관광지로서 각광 받았던 낙안읍성이 머물고 힐링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중심의 콘텐츠로 구성됐다.

축제 기간 동안 낙안읍성을 찾은 12만 명의 관람객들에게 조선시대의 삶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기획한 전통재현 및 체험 행사를 비롯해 김빈길 장군 부임행렬, 백종놀이, 성곽쌓기,

큰줄다리기, 수문장교대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관람객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계 행사로 추진하는 제6회 전통·향토음식 축제, 순천시 농특산물 장터 운영, 떡매치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남도의 음식의 진미로 관람객의 미각을 자극할 것으로 기대된다.

낙안읍성민속문화축제추진위원회 강형구 추진위원장은 “낙안읍성 내 순수 주민자치기구가 직접 추진하는 축제라 더욱 뜻깊다. 이번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 주민주도형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순이 기자

순천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

‘물드림’ 발표 전시회 개최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순천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에서는 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센터 운영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물드림-부채의 일상에 기억과 행복 더하기’의 결과발표 전시회가 지난 10월 14일부터 시작돼 오는 10월 25일까지 진행된다.

‘물드림’ 프로그램은 생태문화도시 순천에서 예술가와 시민들이 함께 순천의 역사와 자연을 기록하고 공유함으로써 치유의 생활문화 플랫폼 조성에 기여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시(詩), 서(書), 화(畵) 3인으로 구성된 전문문화예술 감사들과 지역주민 20여명이 순천의 물길을 통해 순천(순천부읍성)의 옛스러움과 그 역사가 만들어낸 자연생태(옥천, 동천, 순천만)를 생활예술로 표현하는 활동을 해온 작품을 전시한다.

한편 순천시 관계자는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어우러져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정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순수예술을 넘어 시민들의 생활과 융복합된 창작프로그램을 앞으로도 계속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박승호 기자